

<2022년 3월 20일 주일말씀>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아라

[시대 성경]

너희가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나 무엇을 하나님께 원할 때,
소원하고 바라는 것만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진정으로 알아 드러라.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고 알아 드리고,
뜨거운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간구해라.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풀리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신다.

사람도 맺힌 심정을 풀어주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간구해도 해 주지 않느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 심정을 몰라주고서 구하면,
심정이 멎히고 답답하여 구해도 행하지 않으시느니라.

심정을 알아 드리면, 하나님과 바로 통한다.
그제야 기뻐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속 이야기를 해 주신다.

• 본문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알아 드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통회자복하며 대해야,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이 풀어져서
마음을 털어놓으시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깊은 심정>도 ‘그 사람’ 밖에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도
‘하나님과 성령님’ 밖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려면,
‘그 심정’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같이 하시는지,
왜 그 말씀을 하시는지,
왜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지,
왜 심정 답답해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고 풀어 드려야,
뜨거운 눈물이 강같이 흐르고 통회자복하게 됩니다.

-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 자가 있으랴.
<그 심정>을 알고 통회자복하면 ‘뜨거운 눈물’이 강같이 흐릅니다.

-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드리고 대하면,

<하나님의 맺힌 마음>이 풀려서
바로 그러하다고 응답하시고 ‘깊은 말씀’을 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들어 주시고 풀어 준다고 하십니다.

- <사람>끼리도 ‘심정’을 몰라주면,
무슨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모르고 해 달라고만 하면,
‘마음’이 멎혀서 답답해하시고, ‘심정’을 모르니 안 통해집니다.

-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의 깊은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시고 심정 답답해하시는 그 심정>,
<말 못 하는 그 심정>을 몰랐다고 통회자복하며,
‘뜨거운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를 대할 때 제일 큰 것>은
‘그 말 못 하는 심정’을 알아 드리고,
풀어 드리며 대하는 것입니다.

-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 ‘뜨거운 눈물’이 강같이 흘러나옵니다.

- 기도할 때나 평소에
<하나님과 성령님을 대할 때 눈물이 없는 자들>은
‘그 심정’을 모르고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정을 깊이 알고 대하면,
어느 때는 기쁜 심정을 알고 ‘기쁨의 감격의 눈물’ 이 나고,
어느 때는 슬픈 심정을 알고 ‘슬픔의 눈물’ 이 흐르고,
어느 때는 ‘그 심정에 해당되는 눈물’ 이 한없이 쏟아집니다.

그 <눈물>과 <마음을 알아주는 말>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맺힌 마음과 심정’ 을 풀어 줍니다.

-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하면,
‘그 기도’ 를 들어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심정의 눈물’ 을 흘리며 대해 주십니다.

-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알아주는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풀려서 ‘심판을 돌이키신 일들’ 이 많습니다.

▶ <히스기야 왕>이 곧 죽게 되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의 심정’ 을 알아 드리며 기도하니,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 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하며
‘하나님의 심정’ 을 상하게 했을 때,

<다윗 왕>이 다시 ‘하나님의 심정’ 을 알고,
눈물로 침상이 젖기까지 기도하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심정이 풀려서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 ▶ <에스더의 원수 하만>이 왕을 속이고 모사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억울하게 하고 죽이려고 할 때,

<에스더 왕비>가 이를 알고 온 백성과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그 심정’을 아시고,
하만의 거짓말로 그릇되게 생각했던 왕을 돌이키게 하였고,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과 족속들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 ▶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이 망하는 것’을 보시고,
‘심정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 당세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참으셨고,
그 후에 결국 함락되어 망해 버렸습니다.

-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민족’을 도우사,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해(害)를 받을 때
받지 않게 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심정>을 알아 드리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정’이 상하시어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해(害)’를 받게 하십니다.
-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정’이 그대로 맺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풀기 위해
때가 되면 행한 대로 갚아 주며 행하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심정>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로 ‘심정’을 알아주며 기도하면,
니느웨 성에 행하신 것같이 ‘심판하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일>로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모두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기도하니,
‘그 심정’이 풀어져서 ‘심판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랑의 대상체>로서 ‘그 뜻’을 펴니,

누구보다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도우신 것’을 알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역사>를 만나게 하여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창조 목적>을 이루고 살게 하셨으니,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보낸 자의 심정>을 알고
‘뜨거운 눈물’로 대해야 됩니다.

- <심정을 알아주는 자>가 ‘최고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몰라주면,
더 심정이 타고 괴로워하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알고 풀어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뜨거운 감격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으시고,
‘맺힌 일들’을 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정’을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깊은 심정>을 알아야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나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이 풀려서,

그 능력과 권세로 합당한 자를 쓰시며 ‘환난’도 이기게 해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그 깊은 심정>을 알아야,
‘그 마음’을 알아주며 살기에 ‘어떤 일’을 당해도 굳건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환난’도 이기며 살게 됩니다.

-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행하다가,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던 중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 왕>이 걱정되어

‘요시아 왕’과 ‘그 민족’을 위해 <느고>를 통해 행하셨는데,
‘그 심정’을 모르고 오해하고 행하다가 죽었습니다.

- 섭리인들도, 이 시대 사람들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화’를 당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뜨거운 눈물’로 대하면,
이를 원하시니 돌이켜 행하십니다.

- 〈이 시대 사명자〉는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강같이 흘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여호와의 심정〉을 알아주고

‘뜨거운 눈물’로 진정으로 풀어 주는 것이 문제다.

〈내 심정〉만 알고 ‘뜨거운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대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니,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강같이 흘러내렸고,
평소에 걸어 다닐 때도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 〈최고 큰 도(道)〉가 ‘심정의 도’입니다.

모두 깨닫고, ‘시대 사명자’처럼 행하자고 전해 주는 것입니다.

- 성령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통해
‘우리 민족’도 ‘섭리사’도 깨우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 하나님은 지구 세상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택하여
그리고 사랑해 주시며 ‘전쟁’도 막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시대의 전염병’에서도 지켜 주시며 편안하게 해 주시고,
‘그 영들’도 영원히 구원받고 잘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여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더욱 사랑해 주시고,
‘각종 병’과 ‘환난’과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타민족보다 탁월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오해하고 무지로 악하게 대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행한 대로
‘전쟁’과 ‘각종 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택하여 사랑해 주시고,
어느 민족보다도 ‘전쟁’도 막아 주시고,
‘시대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대 사명자>를 보내어
‘그 뜻’을 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막아 주지 않으셨으면,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시다.

- 그럼에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대하니,
‘세상의 다른 민족들’과 같이 동일하게 대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깨달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이 민족과 섭리사를 향한 심정>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로 심정을 풀어 드리며 행하면,
처음같이 대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깊은 심정>을 알고,
‘뜨거운 눈물’을 강같이 흘리며,
‘이 시대 하나님의 심정’을 풀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금주와 올해 당장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 드리면,
‘모든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깨달은 자>는
‘뜨거운 눈물’ 이 강같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의 심정>을 알고,
‘심정의 사랑하는 자’ 가 돼야 됩니다.

<심정의 최고 경지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일체 되어 살게 됩니다.

-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풀어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 을 주어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 <심정을 알아 드리는 기도>가
‘평소의 기도 10번’ 보다도 더 큼니다.

<심정을 알아주는 기도>를
하나님과 성령님이 더 원하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맺힌 한’ 이 풀어지고,
‘우리가 구한 것들’ 을 들어 주시어 ‘문제’ 가 해결됩니다.